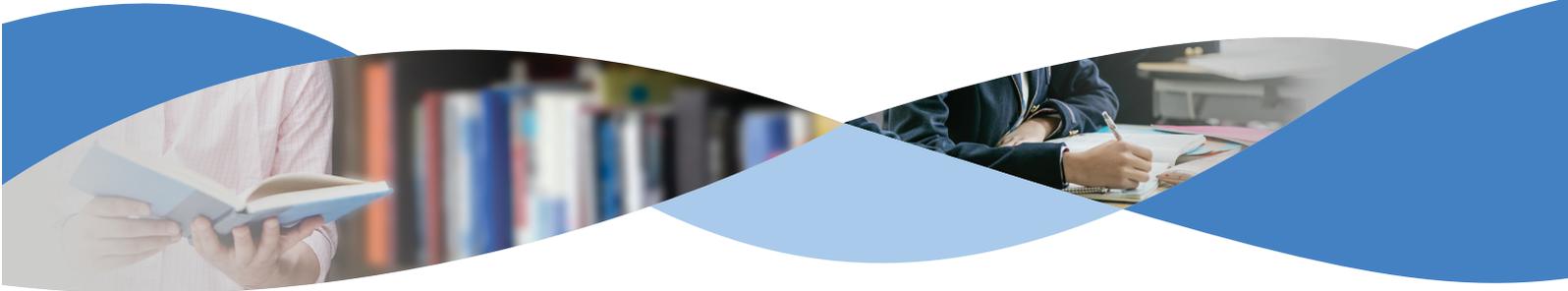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2021. 12.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목 차

Contents

I. 진행 개요	1
II.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9
III. 토론회 및 정책연구 보고회 개최	31
IV. 결론 및 논의	53
V. 참고자료	59





진행 개요

I

진행 개요

1

연구개요

- 위기가정 학생 사례와 및 실태조사로 정서적 지지와 교육 지원 방안
-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연계로 상생교육을 위한 마을 공동체 조성

2

추진방향

- 위기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마을 간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 토의
-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 건강한 가정환경 복원을 위한 방안 탐색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3. ~ 2021. 11. (9개월)
- 사업내용
 -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자료 검토와 전문가 토론회
 - 위기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 청소년 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사례 연수와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 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착수보고와 토론
 - 학교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과제 연수와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토론
 - 학교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과제 연수와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와 토론
- 사업예산: 금4,000천원

가.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 사업개요
 -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 사업내용
 - 1) 문헌연구
 - 국내외 가출 등 위기청소년 현황과 지원 현황 조사 분석
 - 충청남도의 기존 지원체계 조사
 -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조사
 - 2)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 심리검사 실시
 - 3)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 인터뷰(FGI) 실시
 - 4) 지원 방안 도출과 정책 제언
 - 5) 학술적 근거 마련
- 사업비: 금2,100천원

나. 토론회 개최와 정책대안 개발

- 사업개요: 위기가정 학생 교육지원 방안 마련
- 사업내용
 - 위기가정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토론회
 - 위기가정 가족캠프 프로그램 운영
 - 위기가정 학생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사례 연수
 - 학교 위기가정 방문과 지원방안 탐색
- 사업비: 금1,400천원

다. 정책연구 보고회 개최와 보고서 발간

- 사업개요: 정책연구 보고회 개최와 보고서 발간
- 사업내용
 - 정책연구 보고회 개최 (착수·중간·결과보고회)
 -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
- 사업비: 금500천원

사업 내용	일 정	비고
사업계획 수립과 제출	2021. 1월 중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2021. 3. ~ 11.	
연구과제 발표와 토론회(발족식)	2021. 3. 26.(금)	제1차
연구모임회의와 연구용역착수보고회	2021. 6. 22.(금)	제2차
1차 가족과 함께! 마음연결캠프	2021. 6. 24.(목) ~ 25.(금)	
연구과제 중간보고와 토론회	2021. 10. 5.(화)	제3차
2차 가족과 함께! 마음연결캠프	2021. 10. 21.(목) ~ 22.(금)	
연구과제 최종보고와 토론회	2021. 11. 23.(화)	제4차
연구모임 평가 회의	2021. 11. 23.(화)	제5차

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제출 (2021년 1월)

나. 연구모임 발족식과 제 1차 회의 개최 (과제발표와 토론)

- 일시: 2021. 3. 26.(금) 15:30~16:50
- 장소: 충청남도의회 1층 회의실 (108호)
- 대상: 연구회원
- 내용
 - 연구모임 구성 취지와 활동계획 등 안내
 -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발제와 토론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례 안내
- 참석자: 양금봉(대표)의원 외 연구모임회원 19명, 송원영 건양대학교 교수 외 2명
(총 23명)

다. 제2차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일시: 2021. 6. 22.(금) 14:50~17:30
- 장소: 충청남도의회 1층 회의실 (112호)
- 대상: 연구회원

- 내용
 -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토론
 - 청소년 쉼터 사례발표와 토론
 - 청소년 쉼터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 소개와 토론
- 참석자: 양금봉(대표)의원 외 연구모임회원 19명, 송원영 건양대학교 교수 외 2명, 민주시민과 2명, 강사 2명, 전문위원 2명 (총 27명)

라. 제1차 가족과 함께! 마음연결 캠프

- 일시: 2021. 6. 24.(목) ~ 25.(금) 14:00~16:30
- 장소: 서천군청소년수련관
- 대상: 위기와 일반가정
- 내용: 학업중단 위기학생 가정과 일반가정 학생 가족연계 활동
- 참석자: 위기와 일반가정 12가정 40명

마. 제3차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일시: 2021. 10. 5.(금) 14:00~16:30
- 장소: 충청남도의회 1층 회의실 (108호)
- 대상: 연구회원
- 내용
 -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은 어떻게 될까?” 실태와 정책과제 발표
 -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와 토론
 - 지정토론과 전체토론 실시
- 참석자: 양금봉(대표)의원 외 연구모임회원 19명, 송원영 건양대학교 교수 외 2명, 민주시민과 1명, 강사 1명, 서천교육지원청 1명, 전문위원 2명 (총 28명)

바. 제2차 가족과 함께! 마음연결 캠프

- 일시: 2021. 10. 21.(목) ~ 22.(금) 14:00~16:30
- 장소: 무주리조트 일원
- 대상: 위기와 일반가정
- 내용: 학업중단 위기학생 가정과 일반가정 학생 가족연계 활동
- 참석자: 위기와 일반가정 12가정 40명

사. 제4차 함께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일시: 2021. 11. 23.(금) 14:00~16:30
- 장소: 충청남도의회 1층 회의실 (108호)
- 대상: 연구회원
- 내용
 - 위기가정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구실현을 위한 발표와 토론
 -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와 토론
 - 지정토론과 전체토론 실시
- 참석자: 양금봉(대표)의원 외 연구모임회원 15명, 송원영 건양대학교 교수 외 2명, 민주시민과 1명, 토론자 1명, 장향고등학교 1명, 전문위원 2명 (총 23명)

6

기대효과

- 위기가정 지원으로 학생 정서와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공론화
- 학교와 마을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발전이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분위기 조성

II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II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1

개요

○ 연구의 필요성

- 충청남도 가출 등 위기청소년 증가와 관련 문제의 심화
- 충청남도의 경우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례제정이 미흡함
- 충청남도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사례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 확인이 필요함

2

주요 연구 결과 분석

○ 연구 1 : 문헌과 데이터 조사

- 위기청소년의 개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여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위기청소년의 위기수준 및 위기 초래 상황을 분류, 범주화하면 위험군에는 1수준(고위험군), 2수준(행동적 위험군), 3수준(결과적 위험군), 4수준(심리환경적 위험군)이 있으며, 5수준은 잠재군, 6수준은 일반군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청소년기의 위기로인 :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사회요인으로 구분함.
 - 개인요인 :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취약성, 부정정서가 존재함.
 - 가정요인 : 가정환경,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해체가 존재함.
 - 학교요인 : 문제 발생 원인과 결과로 나눌 수 있는데, 원인에는 교사와의 갈등, 친구관계 갈등, 학교 및 학업(학업스트레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 이러한 원인들은 학교생활부적응, 학업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또래요인 : 비행친구와 어울려서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 비행친구는 비행에 대한 하나의 부가 요소라고 보는 경우, 청소년과 비행친구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비행을 하는 경우라고 보는 등 또래는 비행과 같은 위기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관점이 존재함.
 - 사회요인 : 지역사회요인, 과도한 인터넷 사용, 낙인이 존재함.

- **충남지역 위기청소년의 현황** : 청소년 인구,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 가출청소년,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비행청소년, 위기가정 청소년(한부모 가구, 이혼가구),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청소년 인구 : 충청남도의 청소년 인구는 2011년 439,800명에서 2020년 371,676명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전국 청소년 인구 또한 2011년 10,274,586명에서 2020년 8,541,708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 : 충청남도의 학업중단 청소년 수 및 비율은 2011년에 2,695명(0.9%)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 1,407명(0.6%)으로 감소하였음. 충청남도 지역별 학업중단 청소년은 2019년 천안시 718명(38.8%), 아산시 303명(16.4%), 서산시 144명(7.8%)으로 나타남. 전국 학업중단 학생 및 비율은 2011년 74,365명(1.1%)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32,027명(0.6%)으로 나타남. 전국 대비 충청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은 2011년 14.1%로 조사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12.1%를 기록함.
 - 가출청소년 : 2020년 전국은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 비율 합계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충남은 2년 사이 0.5% 증가한 2.7%로 조사됨. 가출 기간은 하루 동안의 단기 가출이 73.8%였으며, 10일 이상의 장기 가출은 16.1%로 나타남. 가출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이 89.5%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 및 이용률은 청소년전화 1388이 57%로, 인지가 가장 높았음. 그러나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 모두 이용률은 1.8~3%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들은 상담 및 정보(69.5%), 쉼 공간과 간식 제공(39.6%), 필요한 물품 제공(11.8%)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음.
 -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 충청남도는 2021년 전체 다문화 학생 10,787명에서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이 526명(4.9%)으로 조사되어 2012년 4.9%로 조사된 이후 전반적인 비율은 동일함. 전국은 2021년 160,056명에서 9,427명(5.9%)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2년 9.1%로 조사된 것에 비해 감소된 결과임. 전국 대비 충청남도의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12년 전체 3.5%에서 2021년 5.6%로 증가하는 추세였음.
 - 비행청소년 : 충청남도 범죄소년은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 2,723명을 기록함. 지능범, 폭력범, 기타형법범, 특별범법은 감소하여 312건(11.5%), 757건(27.8%), 121건(4.4%), 532건(19.5%)을 기록함. 강력범, 절도범, 풍속범은 증가하여 100건(3.7%), 898건(33%), 3건(0.1%)으로 조사됨.
 - 한부모 가구 : 충청남도는 2020년 한부모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감소하여 15,963가구(29.5%)로 조사됨. 이중 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

녀로 구성된 가구는 감소 추세로, 전체 부 또는 모와 미혼자녀 가구 중 35.6%, 24.5%였음. 부 또는 모와 18세 이하 자녀 그리고 기타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또한 감소하여 전체 해당 가구 중 49.6%, 30.6%로 나타남. 충청남도는 전국 및 타 지역 한부모 가구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부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가구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전국 대비 충청남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한부모 가구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구의 모든 형태에서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

- 이혼가구 : 충청남도에서는 미성년자녀가 1명 있는 이혼가구가 매년 가장 많았으나, 2020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22.2%를 기록함. 2명 있는 이혼가구 또한 전년대비 감소하여 17.8%로 조사됨. 그러나 3명 이상 있는 이혼가구는 소폭 증가하여 4.6%로 나타남.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대체로 감소하여 2011년 2,732건(56.7%)에서 2020년 2,233건(44.6%)이었음. 전국 대비 충청남도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0년 5%로, 2011년 4.5% 대비 증가함.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 일반학생과 취약·위기청소년 모두 고위험군일수록 일상 생활장애 및 금단과 같은 위기에 더욱 취약하며, 잠재적 위험군 또한 과다사용과 같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의 역할**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의 운영, 청소년 관련 법률 및 조례의 현황은 청소년 관련 법률(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관련 조례로 구분하여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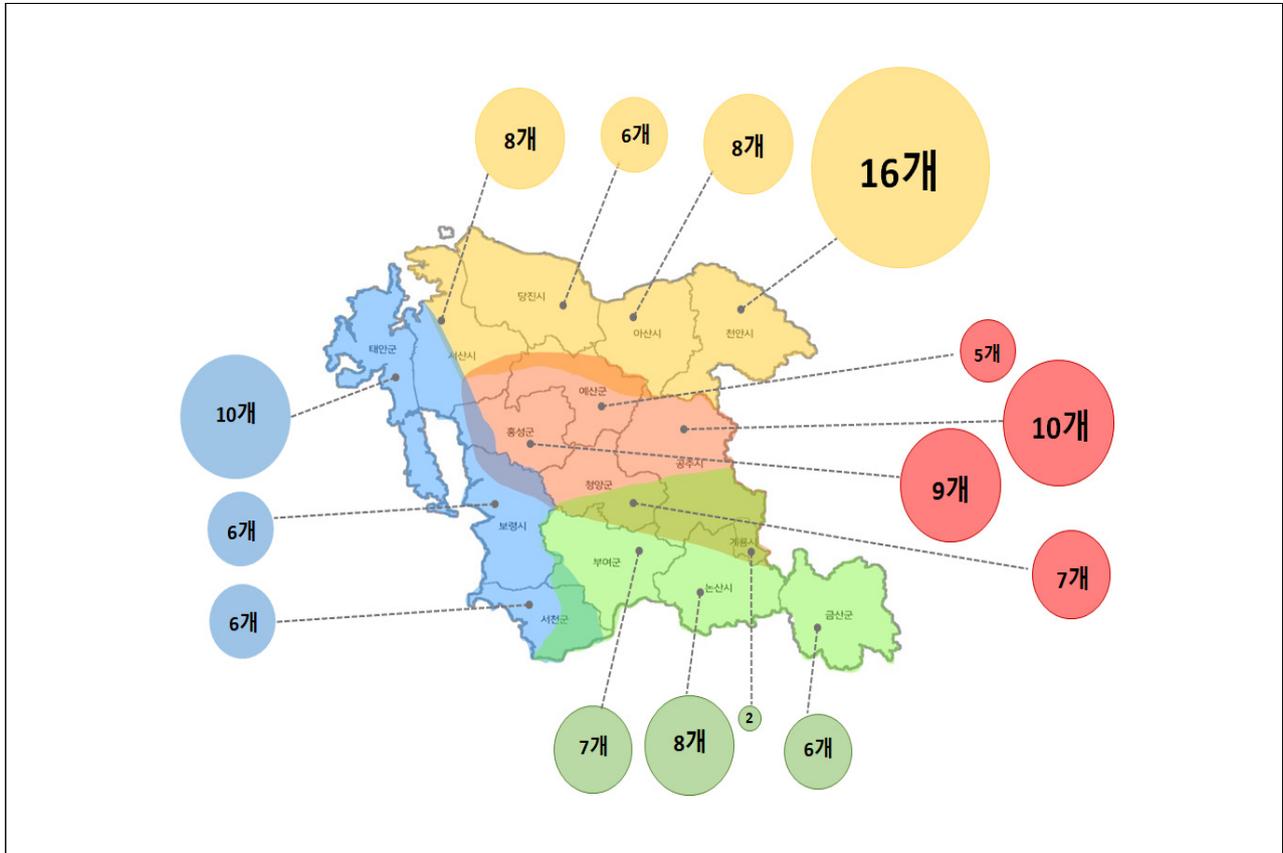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의 운영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임. 지방의회의 역할은 크게 주민대표의 역할,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 견제기능의 역할, 행정감시기관의 역할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집행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청소년 관련 법률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의 의무를 정하고 청소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됨. 청소년기본법을 상위근거법령으로 하는 청소년지원과 관련된 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제정됨.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항들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한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업을 중단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보장과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어려워짐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제정되었음.

- 청소년 관련 법률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을 청소년이 접하는 것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및 구제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됨.
 - 청소년 관련 조례 : 충청남도의 청소년 관련 조례 수는 14개이며, 이는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많은 편임. 또한,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정신건강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원 담당 기관 근무 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지원의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음. 더불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적응적인 인터넷 사용 권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충청남도는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 근거가 부족하며, 시설 퇴소에 대한 지원조례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도움 제공을 위한 기반이 불완전함.
- **위기청소년 관련 조례** : 학교 밖 청소년, 가출 및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로 구분하여 살펴봄.
- 학교 밖 청소년 :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으로 구성됨. 충청남도의 상담지원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이 있음. 교육지원에는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프로그램,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등이 있음.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는 진로탐색기회 제공을 위한 비영 등이 있음. 자립지원에는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이 있음.
 - 가출 및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교육지원, 상담지원, 생활지원, 자립지원,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로 구성됨. 충청남도의 교육지원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이 있음. 상담지원에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 있음. 생활지원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가 있음. 자립지원에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가 있음. 그러나 타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조기발견 및 긴급구조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국내 위기청소년 안전망**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쉼터, 청소년 수련시설), 교육부(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 보건복지부(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등), 법무부(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로 구성됨.
- **충청남도 청소년 지원시설 현황** : 지역별 청소년 인구, 지역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지역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인구 수 및 지역 면적 대비 위기청소년 지원 시설 현황, 청소년 인구 수 및 지역 면적 대비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지역별 청소년 인구 : 2020년 충청남도 내 청소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차례로 천안시(35%), 아산시(16%), 서산시(8%)로 나타남.
 - 지역별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 : 충청남도 내 위기청소년 지원 시설은 전체 64개로, 16개의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개의 WEE센터, 10개의 쉼터 및 자립지원관, 3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5개의 보호관찰소가 있음. 천안시가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홍성군 7개, 공주시와 논산시에 6개의 지원기관이 존재함.
 - 지역별 청소년 수련시설 : 충청남도 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전체 50개 존재하며, 11개의 청소년 수련관, 15개의 청소년 문화의집, 13개의 청소년 수련관, 3개의 청소년 야영장, 8개의 유스호스텔이 있음. 태안군이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천안시가 6개, 세 번째는 공주시, 부여군, 서산시가 4개가 존재함.
 - 청소년 인구 수 및 지역 면적 대비 위기청소년 지원 시설 현황 : 먼저, 청소년 인구 수 대비 지원기관 수 비교 결과, 청양군(6.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천군(4.5%), 홍성군(4.3%) 순으로 나타남. 한편, 천안시(0.8%)와 아산시(0.9%)는 청소년 인구에 비해 지원 시설 수가 부족한 편임. 다음으로 지역별 면적 대비 지원기관 수 비교 결과, 계룡시(3.3%)가 가장 높았고, 천안시와 홍성군이 1.6%로 나타남.
 - 청소년 인구 수 및 지역 면적 대비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 먼저, 청소년 인구 수 대비 수련시설 수 비교 결과, 청양군(9.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태안군(8.4%)으로 나타남. 한편, 천안시(0.5%)와 아산시(0.5%)는 청소년 인구에 비해 수련시설이 부족한 편임. 다음으로 지역별 면적 대비 지원기관 수 비교 결과, 계룡시(3.3%)가 가장 높았고, 천안시와 홍성군이 1.6%로 나타남.
 - 청소년 기관 현황에 대한 종합 : 충청남도를 금강권(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내륙권(공주시,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북부권(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서해안권(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권역별 설치된 청소년 시설을 비교해본 결과 북부권(38개), 내륙권(31개), 서해안권(22개), 금강권(21개) 순이었음.



권역별 청소년 시설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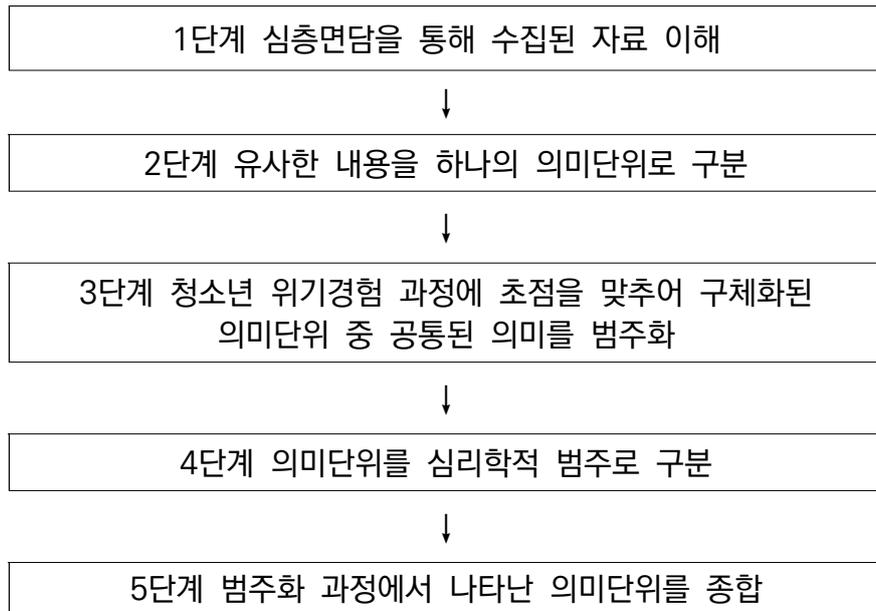
- 국외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 미국(아동·청소년 학대, 가출 및 노숙청소년, 소년사범 비행예방국)과 일본(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본부, 아동·청소년지원 지역협의회, 아동상담소, 소년지원센터)의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봄.

○ 연구 2 : 청소년들의 위기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인터뷰 대상자 선정

- 충청남도 소재 청소년기관의 지원의 받고 있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 9명
- 충청남도 소재 청소년 기관의 소속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실무자 9명

- 인터뷰 자료 수집 후, Giorgi(1985)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내용 분석 실시



Giorgi(1985)의 자료분석 절차

[연구 2 결과]

- 위기청소년 심층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111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참여자 경험의 공통적 본질이라 판단되는 26개의 하위범주와 9개의 상위범주로 도출함.
- 가정으로부터 발생한 문제 : 위기를 경험하는 참가자들 대부분 가정에서의 문제를 경험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감정이나, 견디기 힘든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혼자 참아 내거나, 참았던 감정을 가족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표출하여 갈등이 심화됨. 한편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눈치를 보거나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신체적, 심리적 학대를 당하며 두려움을 느낌. 결과적으로 가정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이 쌓이게 되었음.
- 학교에서 경험한 어려움 : 참가자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문제로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학교의 미성숙한 대처로 참가자들 혼자 문제를 감당해야만 했음. 몇몇 참가자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였고, 학교에서는 문제가 커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참가자가 참아주기를 강요함. 다른 참가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업중단을 선택하였지만 교사의 강요로 자퇴신청서에 학교생활부적응인한 학업중단으로 적는 등 학교의 책임을 참가자에게 떠넘기는 대처를 함. 한편 통학, 기숙사의 엄격한 통제,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교생활부적응을 경험하는 참가자가 있었음.
- 친구로 인한 외로움과 괴로움 : 참가자들은 또래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친밀함

과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였으며 참가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또래친구로 인한 위기경험은 다르게 나타났음.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참가자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또래친구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기도함.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은 느끼는 참가자는 소외감을 느끼며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친구를 원하고 있었음.

- 사회적 보호의 부재 :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하는 보호로부터 떨어진 참가자들은 편견과 함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위협을 경험해야만 했음. 몇몇의 어른들은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참가자들을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한 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였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 또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성매매를 해야만 했고 사회는 보호해주지 않음.
- 기본적인 안전망에서의 이탈 :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이 생활해야하는 가정과 학교를 이탈하였으며, 몇몇 참가자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행은 저지름. 참가자들은 가정에서 감당해야만 했던 신체적·심리적 학대와 소외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출을 선택하였으며, 집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꼈다고 함. 학교를 이탈한 참가자들은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와 학교부적응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교생활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음. 가정과 학교를 이탈한 참가자는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며 지위비행을 시작으로 점차 법적 처벌이 가능한 비행까지 저지르는 등 비행의 수준이 심각해짐.
- 위기상황에서 기관을 통해 경험한 도움 : 참가자들은 위기상황에서 다양한 도움을 지원받았는데, 몇몇 참가자는 경험한 도움이 효과적이지 않았거나 지원기관에서 갈등이 발행하여 다시 위기로 돌아가는 등 시행착오를 경험해야만 했음. 가정을 떠나 생계와 더불어 생존에 위협을 경험한 참가자들은 의식주와 같은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있었음. 참가자들 대부분 자신의 심리 및 정서적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상담지원을 통해 정서적인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다시 삶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내적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음.
- 일상생활의 회복과 자신을 위한 노력 : 참가자들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되돌아보며 후회를 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적응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몇몇 참가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대처방법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현실의 문제에 좌절하기보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함. 이러한 노력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더 나아가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등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음.

- 관계의 회복과 지지 : 참가자들은 가족과의 관계 회복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위기상황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음.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자신의 문제를 가족구성원에게 마음을 털어 놓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기관 연계로 비교적 빨리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음. 또한 친구들의 지지를 통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어려움을 겪는 다른 청소년을 위한 제안 : 참가자들은 위기상황에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도움들이 있었고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았다면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아쉬워함. 참가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알고 있더라도 지원기관의 수가 적거나 접근이 어려워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의 확충과 홍보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연계 체계가 필요하다고 함. 참가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줄 수 있는 상담지원과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함.
- 청소년지원기관 실무자 면담 자료를 분석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상황, 위기청소년을 위한 도움, 필요한 지원,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도출함
- 가정 영역 : 위기청소년의 경우 외적으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음.

가정 영역

구분	유형	내용
가정	경제적 어려움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 부족
	방임	-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족 - 청소년 지도 및 통제의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
	가출	- 강압적인 부모와의 갈등 - 가정학대로 인한 가출
	해체	-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 - 조부모와 생활

- 학업 영역 : 최근 청소년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반대로 진로 및 학교생활로 인한 학업중단 속

려제 진행하거나 학교의 태도로 인한 상처와 갈등,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함.

학업 영역

구분	유형	내용
학업	자발적 중단	- 자신의 목표 및 꿈을 위한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문제	-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학교와의 갈등 - 학교에서의 관계 문제 -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과도한 미디어 노출
	또래문제	- 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 - 사교육으로 인한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 개인 영역 : 청소년은 자신의 기질 및 성격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시스템, 교육 등 적응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기를 경험하게 됨. 그러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부적응적인 대처를 통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음.

개인 영역

구분	유형	내용
개인	특성	- 개인의 기질 및 성격으로 인한 사회적 시스템 부적응
	스트레스	- 스트레스 해소 및 대처의 어려움 -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자해하는 청소년 증가
	약물복용	- 기관 및 보호시설 청소년 중 정신과 약물 복용 사례 증가
	중독 및 비행	- 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한 미디어 중독 - 과도한 미디어 노출로 인한 미디어 중독

-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도움 : 각 지역에서는 국가적 지원인 청소년안전망과 더불어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도움

구분	유형	내용
종류	안전망	-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안전망 -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전망
	맞춤형 서비스	- 숙박, 물품, 차량 운행 지원
	연계 서비스	- 교육청과 경찰서를 통한 위기청소년 발굴 - 지역 유스호스텔에서의 일시보호 - 보호시설 거주 및 전학을 위한 교육청 도움 요청
	복지지원	- 치료재활사업 - 충남 심리정서지원사업 - 원가정 복귀절차

-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 위기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으로는 경제적 지원으로 보고되었으며, 학업지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멘토링 연계, 치료재활 등이 필요하다고 함. 또한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독립적 건물을 확보하지 못해 안정적인 지원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었음.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구분	유형	내용
종류	경제적	- 의식주 해결 - 청소년 자립지원금 - 청소년 지원금 확대
	학업 및 진로	- 학업 지원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 멘토링 연계 기관
	문화시설	- 청소년 문화 시설
	심리상담	- 심리지원 전문기관 - 청소년 지원기관 - 찾아가는 서비스 - 온라인 상담 - 언어치료 및 사회성 향상 치료 프로그램 - 부모교육
	안전하고 지속적인 장소	- 지원기관의 독립 건물 확보 - 사용하지 않는 건물 활용
	정책	- 청소년 대상 정책 지원 - 조손가정 및 위기청소년 정책

- 위기청소년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 청소년지원기관 실무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해 청소년이 아닌 행정처리에 초점, 기관의 성과로 인한 양질의 지원 저하,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 비중 등으로 인해 지원과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학업중단청소년의 개인정보제공 미동의로 인한 발굴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처리로 인한 발굴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위기청소년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구분	유형	내용
종류	업무	- 연계 기관 간 업무의 불명확한 경계 - 과도한 행정업무 - 기관 간의 성과 평가
	권한	- 지원 기준의 불분명함 - 학업중단숙려제 매뉴얼 부재
	발굴	- 기관 간 연계 미흡 - 복잡한 행정처리로 인한 정보전달 지연 - 숨어버리는 청소년
	인력	- 인력부족 - 비정규직 인력 - 직원 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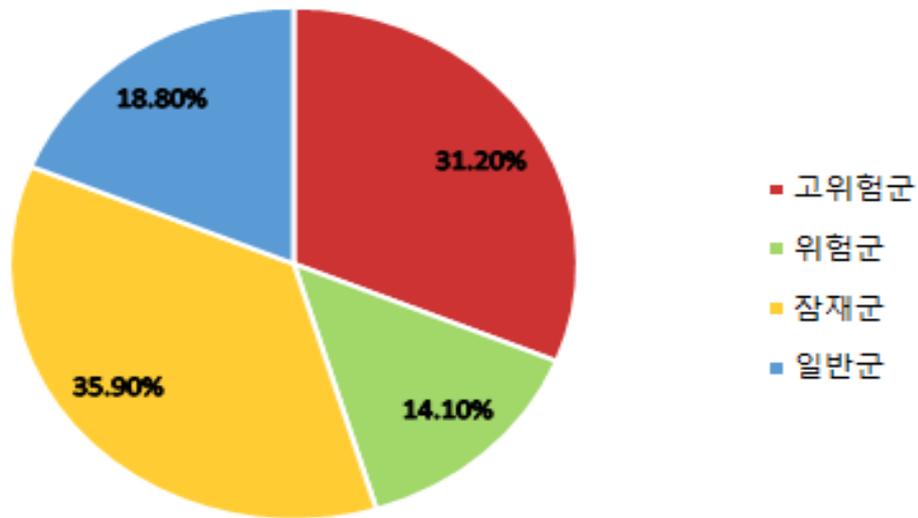
○ 연구 3 :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와 분석

- 인터뷰 대상자 선정
 - 충청남도 소재 청소년기관에 소속된 팀장급 실무자 61명
 - 충청남도 소재 청소년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64명
- 설문자료 수집 후 Excel, SPSS 21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F-test, χ^2 -test 실시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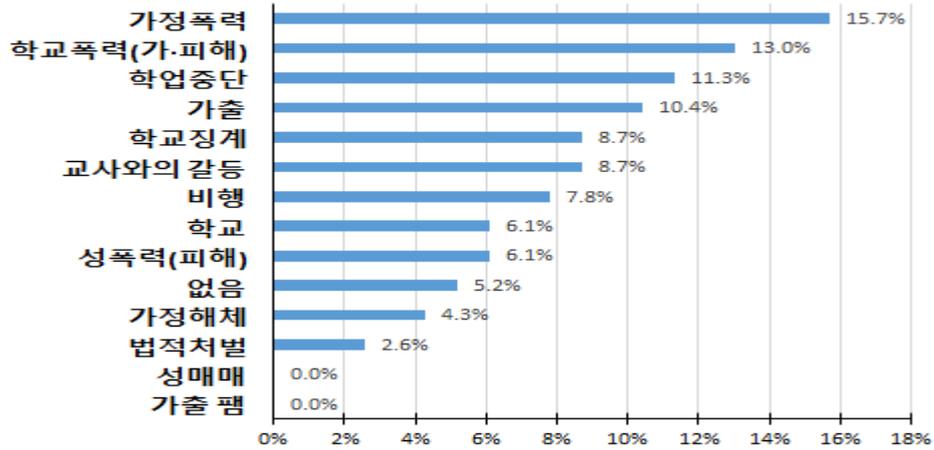
[연구 3 결과]

- 충청남도 청소년의 위기수준 및 위험군 : 충청남도 청소년의 경우 전체 평균은 58.53점으로 위험군에 해당하였으며, 잠재군(35.9%)이 가장 많았으며, 고위험군(31.2%), 일반군(18.8%), 위험군(14.1%) 순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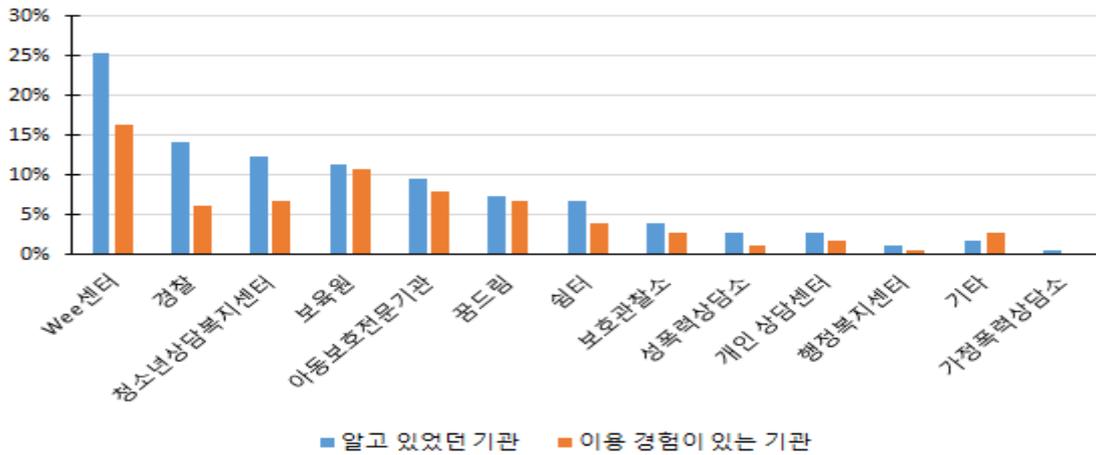
구분		점수	빈도	비율
고위험군	고위험군	67점	20명	31.2%
& 위험군	위험군	57점	9명	14.1%
잠재군	잠재군	34점	23명	35.9%
& 일반군	일반군		12명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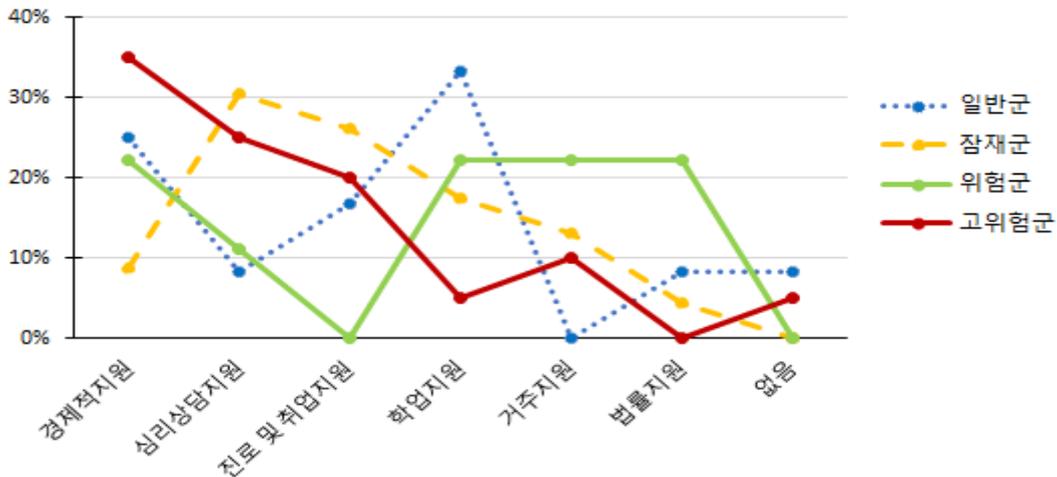
-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학업현황 : 재학(62.5%), 자퇴(23.4%), 기타(7.8%), 학업중단 숙려제(6.3%)을 경험하고 있었음. 기타의 경우 위탁, 휴학, 고졸, 가정학습으로 응답하였음.
- 위기청소년의 가정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 차이 비교 : 가정과 자신의 경제적 상황은 '보통이다'(57.8%)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가정과 자신의 경제적 수준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매우 어려운 편이다'와 '잘사는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있었음.
- 위기청소년 생활비 마련 경로 :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비 마련 경로는 기관의 지원(46.9%), 부모님의 지원(34.4%), 기타(9.4%), 아르바이트(7.8%), 친척의 도움(1.6%)이 있었음.
- 충청남도 위기청소년들이 경험한 사건 : 가정폭력(15.7%), 학교폭력(13.0%), 학업중단(11.3%), 가출(10.4%), 학교징계 및 교사와의 갈등(8.7%) 순으로 위기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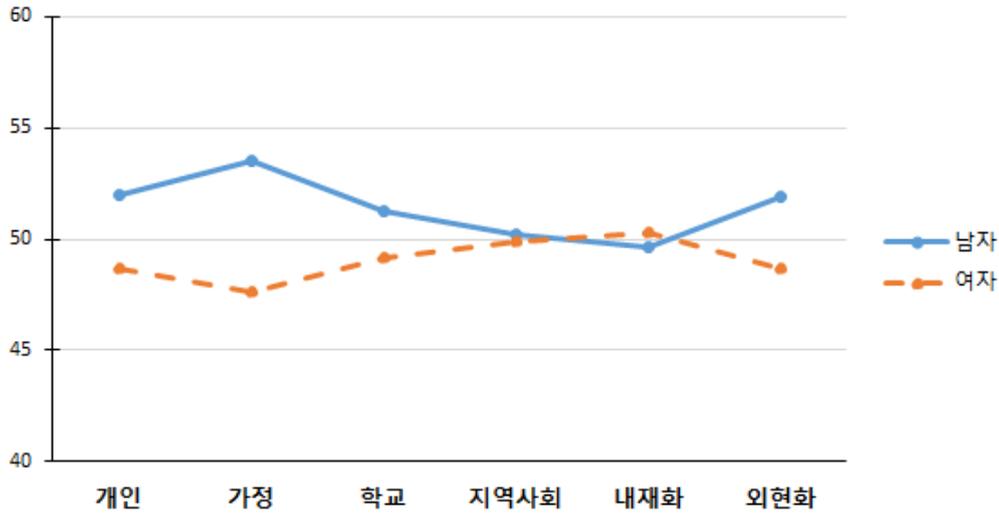
- 충청남도 위기청소년들이 알고 있었던 청소년 지원기관과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지원기관 비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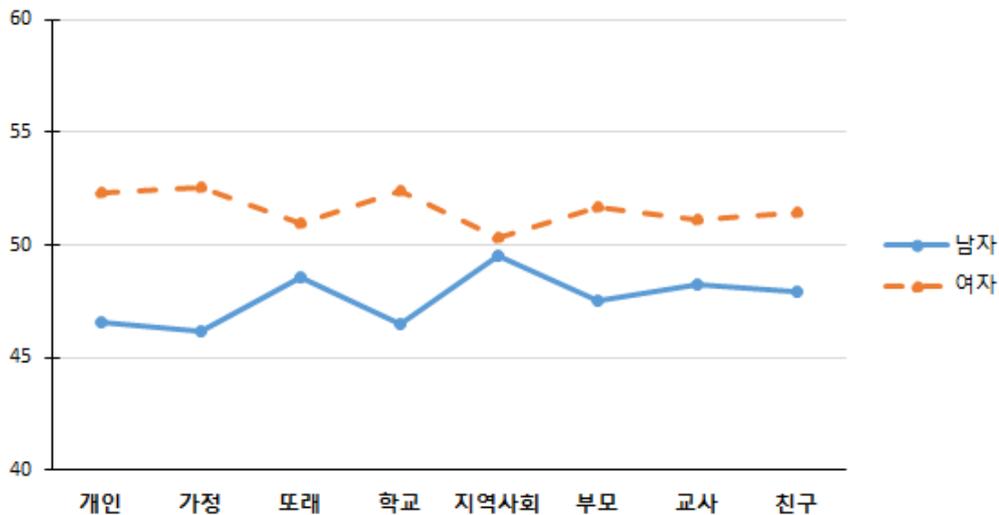
- 위기수준에 따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움 종류 : 고위험군, 위험군, 잠재군, 일반군으로 분류하여 필요한 도움 종류를 분석한 결과 위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 비교 : 남자청소년의 경우 위기 요인이 여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보호요인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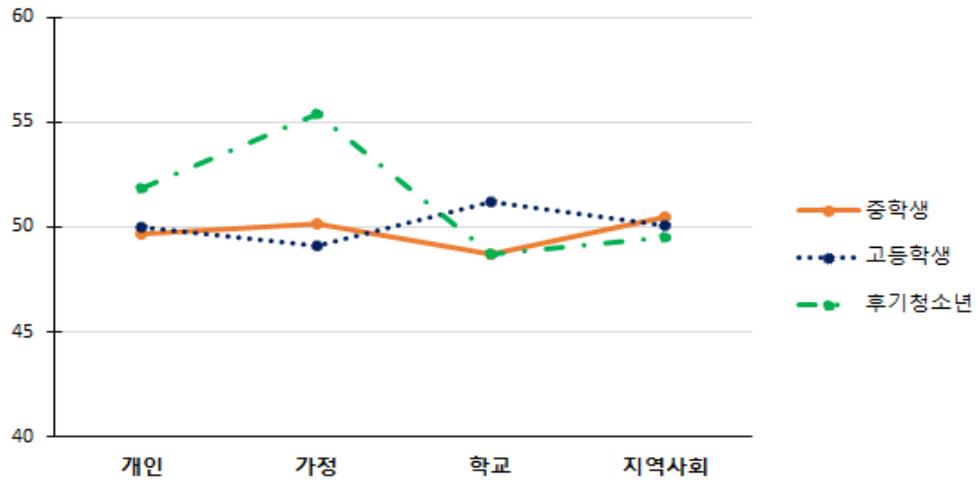


〈위기요인 · YSR 행동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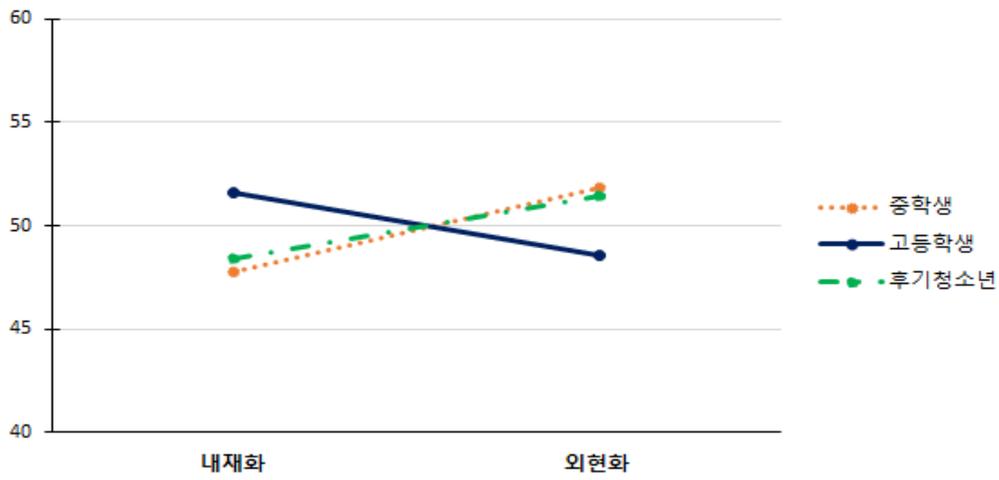


〈보호요인 · 사회적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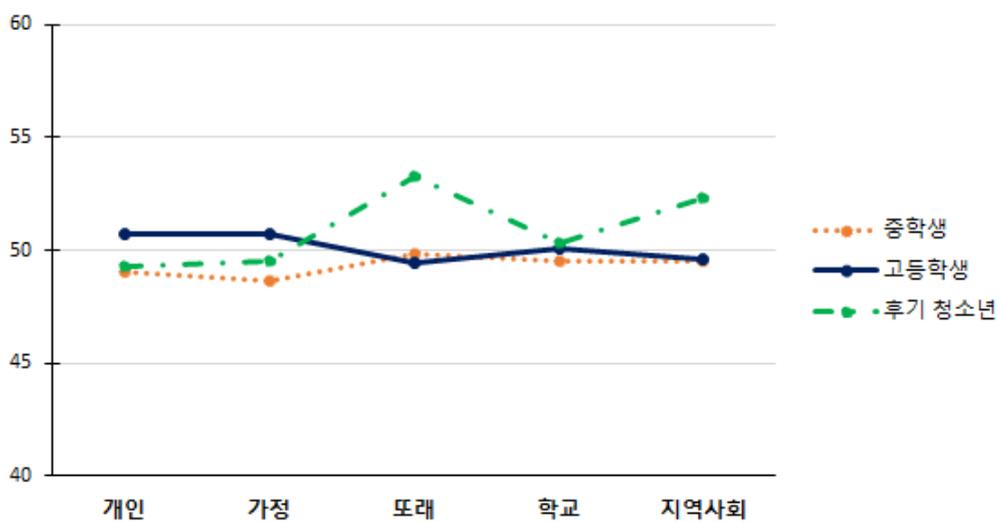
- 연령에 따른 차이 비교 : 고등학생의 경우 내재화수준이 높았으나 중학생, 후기청소년의 경우 외현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함. 또한 후기청소년의 경우 가정영역에서 위기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나타냄. 보호요인의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후기청소년은 또래의 보호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음. 사회적 지지의 경우 중학생과 후기청소년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은 교사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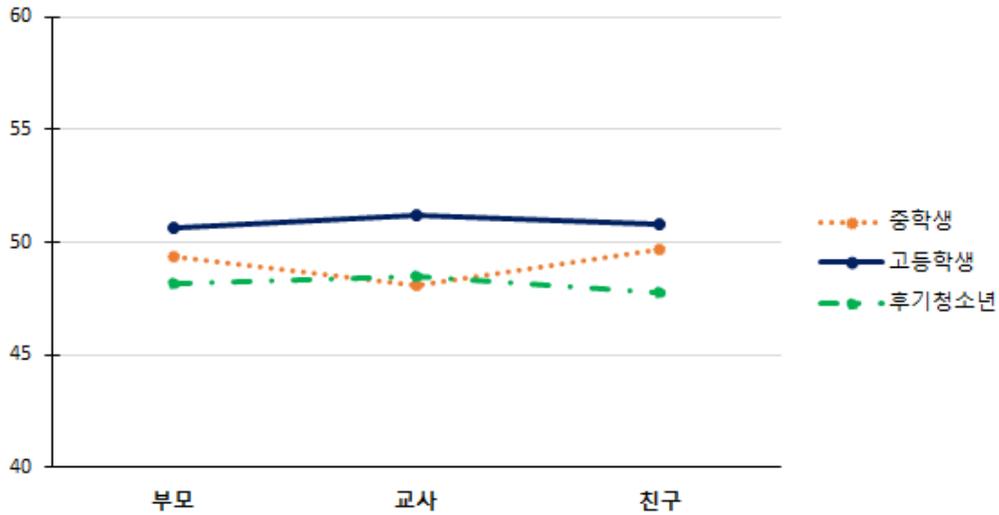
〈위기요인〉



〈YSR 행동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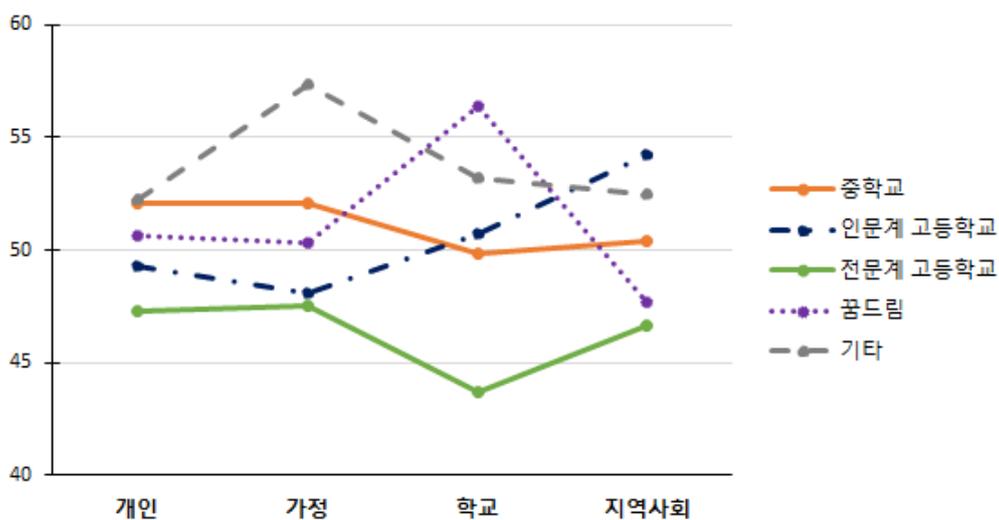


〈보호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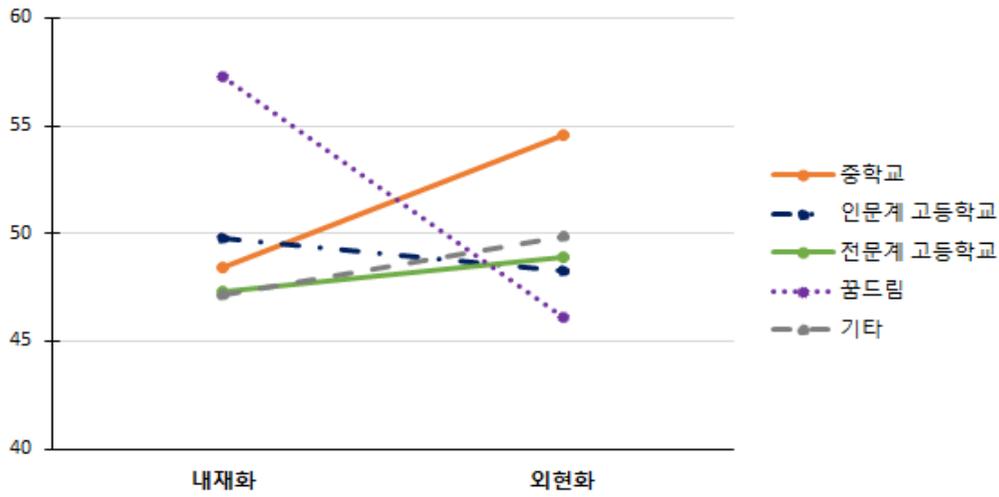


〈사회적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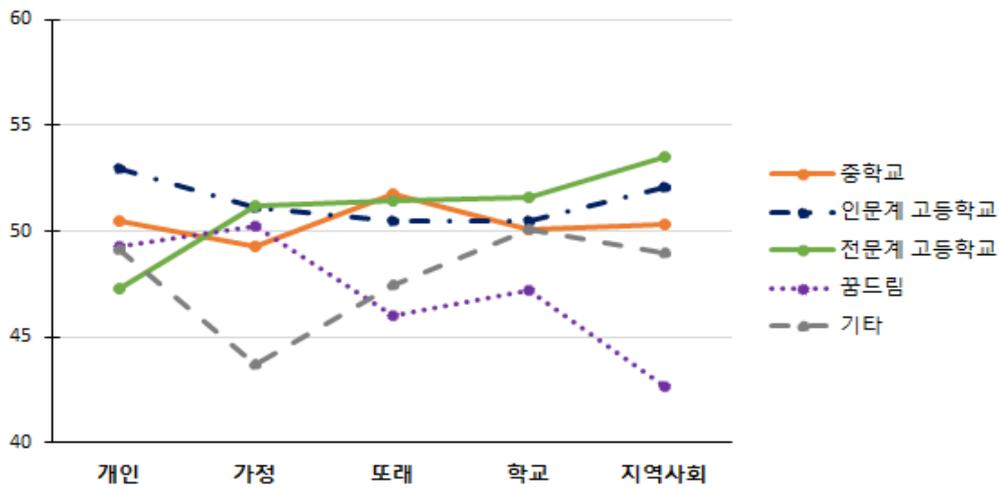
-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 비교 : 소속기관에 따른 위기요인의 경우 소속기관별 요인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는 50T 평균 이하로 타 소속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YSR 분석결과 전문계 고등학교(48.93점), 기타(49.85점), 중학교(54.55점)의 경우 외현화로 인한 위기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49.80점), 꿈드림(57.27점)의 경우 내재화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음. 인문계고등학교는 보호요인과 사회적 지지 모두 50T 이상으로 나타남. 전문계(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개인영역을 제외 한 지역사회, 교사, 친구, 가족 영역 모두 50T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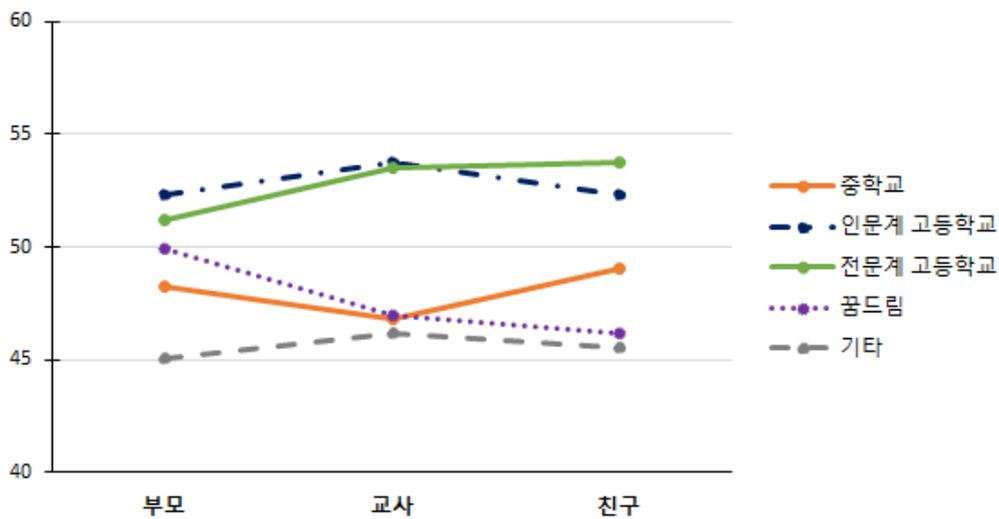
〈위기요인〉



〈YSR 행동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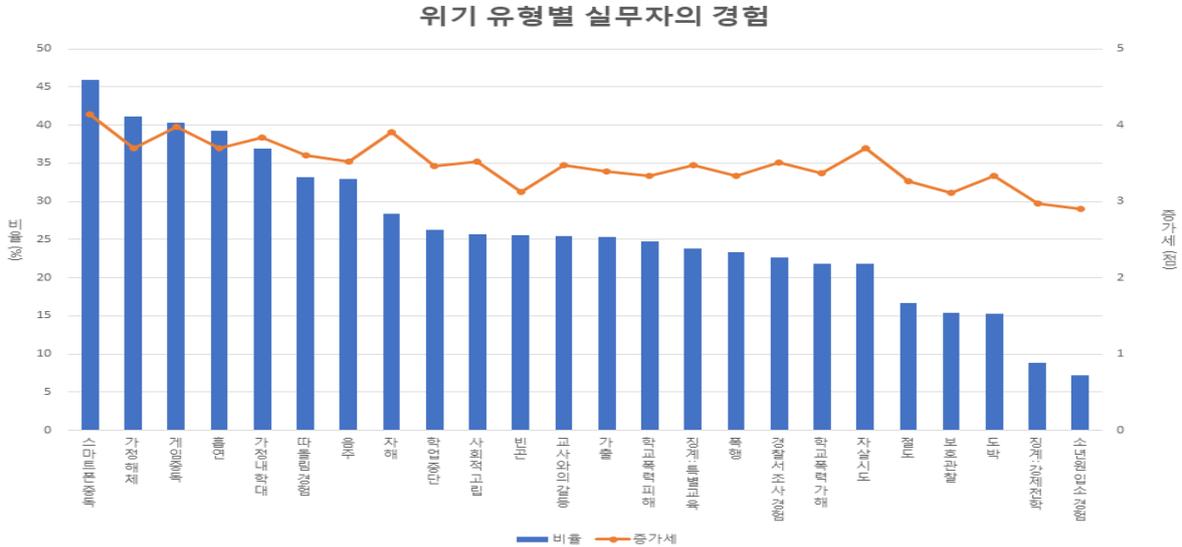


〈보호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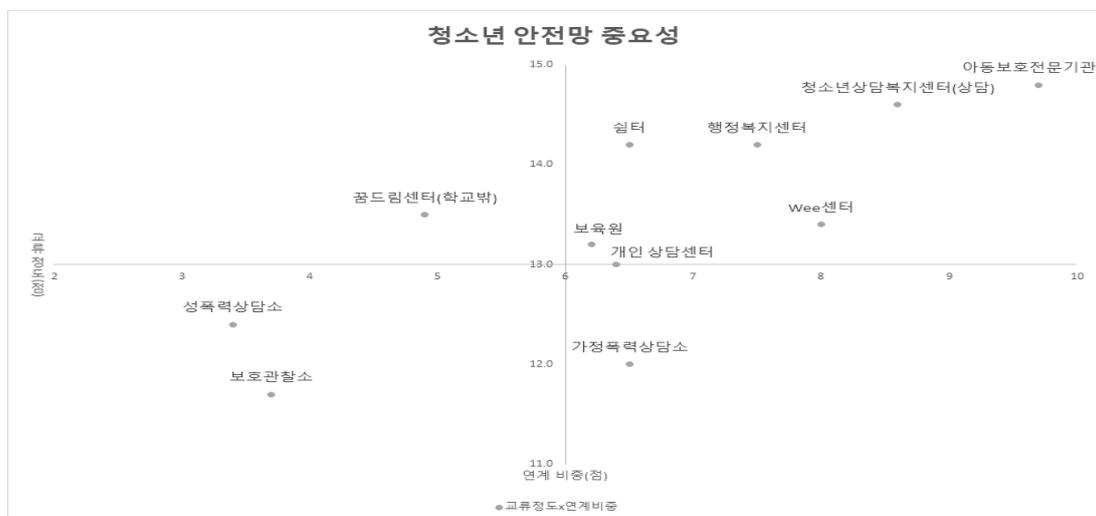
〈사회적지지〉

- 충청남도 위기 유형별 실무자 경험 : 스마트폰중독(46.0%), 가정해체(41.2%), 게임중독(40.3%), 흡연(39.2%) 순이었으며, 최근 증가 추세로는 스마트폰중독(4.1점) 게임중독(4.0점), 자해(3.9점), 가정 내 학대(3.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안전망 교류 정도 및 연계 비중 결과

- 교류 정도와 연계 비중 모두 높은 영역에는 차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 Wee센터, 행정복지센터, 쉼터, 보육원, 개인 상담센터가 해당되었음.
- 높은 교류 정도와 낮은 연계 비중에 해당하는 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었음. 낮은 교류 정도와 높은 연계 비중에는 꿈드림센터(학교밖)가 있었으며, 교류 정도와 연계 비중 모두 낮은 기관에는 성폭력상담소와 보호관찰소가 해당되었음.



<청소년 안전망 중요성>

- 청소년을 돕기 위해 개선해야할 점 : 실무자 행정부담 축소(8.8점)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무자 보수의 증가(8.7점), 청소년 기관의 지역적 안정성 확보(8.4점), 실무자 고용의 안정성(8.2점) 순으로 나타남.
- **확충이 필요하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시설** : 치료형 쉼터(8.4점), 심리지원센터(7.8점), 긴급구조 및 보호시설(7.3점)과 자립관(7.3점), 중장기쉼터(7.2점), 인터넷드림마을형 중독치료센터(7.2점), 일시 쉼터(7.1점), 국립중앙디딤센터형 치료재활센터(6.9점) 순으로 높았음.
- **실무자의 소진과 근무 실태**
 - 정서적 탈진(3.5점), 개인적 성취감 결여(3.8점), 비인간화 2.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실무자 근무시간은 평균 8~9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9~10시간, 7~8시간 미만 순으로 높았음. 월평균 임금 만족도는 보통(24명) 가장 많았으며, 매우 불만족~불만족(23명), 만족~매우 만족(11명)으로 나타나, 임금에 대해 불만족하는 실무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실무자들은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직 고려 사유로 열악한 복지, 인간관계 갈등, 업무대비 적은 급여, 실적 위주의 업무, 운영가치관, 상관 없는 업무 수행, 타직원의 업무 수행 등을 보고함.
 - 이직 사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근무하는 이유로 위기청소년의 변화에 대한 보람, 누군가 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 이직 가능성에 대한 걱정 등으로 보고됨.

Ⅲ

토론회 및 정책연구 보고회 개최

강춘화 (논산꿈이레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위기청소년 발견의 중요성

1. '위기 청소년'으로 찍힌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라는 낙인 때문에 굴레를 벗어나지 못함. 위기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발견 필요.

2. '위기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정서적 안정성, 성취성은 떨어지고, 공격성과 반사회성이 높게 나타남. 때문에 방치할 경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음.

3. '위기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정서적 어려움의 맥락 전체를 인식하여 청소년의 위기와 학교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청소년 안전망



■ 청소년안전망 기관 ■

경찰서, 응급센터, 쉼터, 아동·성폭력상담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동사무소, 자활지원관, 대안학교, 모자복지시설, 법률지원기관,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방과후 교육기관, 학교, 직업교육기관, 고용복지센터 등

위기청소년 정책 건의사항

1. 기성세대(정치인)의 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가치관 변화
 - 청소년복지시설 유치-혐오시설로 반대 등
2. 실적 및 서류 위주의 청소년 복지기관의 평가 지양
3. 청소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처
4. 실제 활동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안전망) 협력 강화
 - 지역의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경찰서, 노동관서, 병원,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등을 필수연계기관으로 구성
5. 다양한 모습으로 특성화된 대안 위탁 교육
6. 청소년의 성문화 및 성매매
 - SNS 및 휴대폰 사용 법개정 필요
7. 현 시대에 맞는 소년법 개정
 - 소년보호처분 8호 선호 등
8. 이기주의적 청소년 인성 및 인권 문제 교육

청소년쉼터 운영 문제점

1. 관할 관청 소속 부서 변경 및 담당자의 복지전문가 배치
2. 운영자의 권한과 인권
3. 인구 감소에 대한 대처(쉼터별 지역 배치 및 특성화)
4. 신설 기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운영 및 직무연수
5.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
6. 4차산업혁명 시대의 적용 시설보강비 지원

2

청소년심터 집단프로그램 운영

한유희 (HYR진로상담센터 대표)

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진로 발달과 성숙 관점에서 보기

- 진로 지향성 부족, 자기이해, 직업의 세계의 정보 부족, 직업성 성 편견, 자긍심
- 의사결정능력의부족, 만성적 미결정 및 내적 갈등, 진로 준비 행동의 결핍,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

나. NEO 성격검사의 필요성

-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평소 나의 성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는 것
-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기- 대인관계, 학업과 직무관련 성격, 취업준비, 면접 등
- 정신건강과 행복 - 결혼과 가족생활

다.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프로그램 소개(집단상담, 1:1 상담)

라. 활용사이트

3

학교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은 어떻게 될까? 실태와 정책과제

윤철경(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장)

가. 국내외 정책현황 분석과 시사점

1) 무업 학교 밖 청소년에 초점을 둔 정책 개발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 개발 필요
 - 선진국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에 재편입 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국에서는 스스로 등록하는 청소년들에게만 혜택이 제공되고 있기때문에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

2) 학교 밖 청소년에 중점을 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필요

- 취업사관학교가 유일하지만 이마저도 정원이 매우 적은 편임
- 내일 배움카드제, 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 모두 청소년 참여율이 매우 낮음
- 일본처럼 청소년에게 초점을 둔 기관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

3) 만 18세까지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보장

- 청소년 보장제도
 - 직장을 잃거나 학교를 중단한 지 4개월 내에 양질의 고용 기회, 지속적인 교육, 훈련, 견습의 기회를 획득하게 하고자, 훈련과 고용기회 제공, 개인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정책
- 유럽 국가들은 청소년보장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스코틀랜드는 16세의 의무교육이 끝나기 직전에 진로계획을 상세히 조사하는 “16+학습선택권”을 실시하고 있음
 - 의무교육이후에도 19세까지 청소년들이 교육이나 훈련,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업 청소년들을 사회로 재편입시키고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데이터 허브 구축
- 스코틀랜드 16+ 데이터 허브
 - 의무교육 연령이 끝나기 전인 15.5세에 학교에서 학생 정보 및 진로 계획을 조사하여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에 전송하여 20세가 될때까지 업데이트 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 학교 밖 청소년 무업화 예방을 위해 학교를 떠나기 전 학생 정보를 상세히 수집하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
 - 무업청소년 실태 파악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접촉과 상담을 통해 사회로 재편입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음.

4) 지역사회 파트너십, 고용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이 무업청소년의 사회 재편입 성패를 가를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은 대체로 자신의 지역에 머물고 있음
 - 청소년 보장은 지역당국과 민간기업 및 단체, 대학, 학교 등의 지역사회 파트너십이 잘 형성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

5) 학교기반 정책과 지역사회기반정책을 함께 구축해야 함.

- 무업화 예방을 위한 학교기반정책+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정책이 함께 가야함
- 스코틀랜드의 SDS사례
 - 학교를 기반으로 학교와 직장 연결 프로그램, 견습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동시에 직장을 기반으로 훈련 및 견습 프로그램 운영
 -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떠나기 전·후, 학교를 떠난 뒤에도 참여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음

6) 원거리, 농어촌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

- 호주의 사례 지역개발프로그램에 무업청소년을 참여시키면서 소득지원을 하고 있음.
- 청소년들은 직업훈련을 받거나 주당 25시간의 약물치료 및 재활, 운전면허, 문맹퇴치활동 등에 참여.
- 호주 60개 지역에 1,000개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7) 무업청소년의 상태, 취업능력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분류가 필요

- 무업청소년의 유형은 ①실업자(장단기) ②장애 등으로 구직불가능자
- 가사노동등으로 일할 여력이 없는자 ③낙담한자 등 매우 다양함
- 무업청소년 문제의 핵심은 구직자보다 비구직자에 있으며, 무업청소년이 되는 요인으로는 여성, 고졸미만 학력, 은둔형 외톨이 등이 있음
- 다양한 무업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형에 맞게 적극적으로 유인해내는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8) 진로직업 상담시설의 부족

- 학교 밖 청소년 핵심요구는 ‘진로직업상담’과 ‘취업지원’ 현재진로직업 상담창구는 인터넷의 커리어넷과 워크넷 뿐임. 진로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충해야 함.

9) 대안교육 시설 확충이 매우 취약함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투입되는 1인당 공교육비는 30만원 이내로 매우 취약함
 - 미국의 차터스쿨은 기존 학교와 동일한 1인당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영국의 자유학교 역시 일반학교의 60~70%수준으로 지원받는 실정
 -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가 지역사회에서 교육기능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 각 주와 영국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학교 형태를 운영하고 있음
 - 학습내용도 다양하여 학교 형태도 야간학교, 온라인강좌 등 다양함
 - 지역사회에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교육지원비의 이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10)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별 맞춤형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초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
 - 일본은 초중학교의 무등교학생에게는 교육청에서 적응지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이와같이 의무교육 단계 학교 밖 청소년은 공동체적 교육경험을 하게 해줘야 함.
 -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의 복교와 재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고등학교 단계 학교 밖 청소년
 - 복교율이 낮고 대체로 검정고시를 이용하고 있으나 개별적 지원은 하고 있지 않음

- 이들이 학교를 나와도 학교에는 동일한 교육재정이 투입되는데, 이 비용을 청소년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원이나 지역기관 등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바우처 제공 등

나. 결론: 미래방향

1) 청소년은 지역에 있다.

- 대도시는 검정고시 후 대학 진학 목적이 많음-대입진학지원 등 진로지도
- 중소도시 읍면 지역일수록 중단상태 유지 경향-검정고시, 직업훈련, 지역개발 참여 등 고려
- 점대상의 설정: 무업형, 은둔형 외톨이
- 무업형의 분류: 무업청소년의 문제의 핵심은 구직자보다는 비구직자

2) 지역 청소년 생태계 구축

- 청소년을 위해 일할 사람과 공간: 전문가 집단은 조직을 벗어나 한 공간 동일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같이 일해야 한다
- 비청소년 분야 지역지도자와 힘을 합쳐 청소년 친화적 환경으로 구성해야한다.

3) 지도자의 역할

-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 지역에 터 박은 지도자, 청소년과 함께 머무는 지역 지도자, 지역개발자, 지역적 특성이 창의성을 더욱 필요로 해, 중앙차원의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
- 청소년 전달체계를 벗어난 지역 활동가, 청소년 조직을 벗어나 지역 조직 활동가(노인정, 마을 이장님, 공무원, 지역개발사업과 소통하며 청소년의 활동을 넓혀줘야 한다.
- 청소년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이는, 찾아가는 지도자(청소년에게 찾아가 욕구에 맞게 조직한 프로그램 기획(자연권 수련시설 풍부)하여 계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기'(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이다.)

4) 지역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학교과 밖에 차이가 없다. 마을 기획으로 온동네 참여
- 집에 머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이끌어 낼까? 평소 세심한 관계형성 필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필요

5)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활성화 필요

- 진로 미결정 청소년, 학업중단 기간 길어질수록 늘어나
- 청소년 친화적 마을 기획 필요, 도시는 소상공인 중심 인턴십 강화, 농어촌은 지역개발사업 연동 인턴십 등

- 청소년 활동 참여 수당 고려해야
- 청소년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진로 지원 기능 포함 절실함.

6) 필요한 서비스 개발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개발(진로직업훈련, 인턴십, 일자리 지원 등 매우 필요)

- 목공, 도예, 염색, 디자인, 인테리어, 자동차 수리, 지역전통문화기관 등 지역사회 다양한 업종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 참여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립 작업장 구축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
- 지역사회 기관과 협약을 통해 청소년 알바, 인턴, 취업 지원
- 학력 무관 업종 발굴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4 연구를 위한 지정토론자 의견

가.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에 대한 토론

윤철경(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장)

○ 연구에 대한 총평

- 문헌연구, 질적 조사, 양적 조사 모두 매우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이 이루어져 연구진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많이 투입되었는 지 알 수 있었음. 연구진의 수고에 대해 경의를 표함
- 분석내용에 대해 첨언할 것은 없으며 충남도 위기청소년 상황을 개관하는 데 매우 소중한 데이터가 탄생한 것으로 보여짐.

○ 위기청소년의 범주

- 충남도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학교밖청소년, 가출청소년,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범죄청소년, 위기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 이혼가정),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청소년 등 현재 데이터가 산출되고 있는 집단으로 정의되고 있음
- 그리고 이들 대상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청소년, 실무자를 조사하였음.
- 조례가 있으며 지원받고 있는 대상, 기관에 대한 개선사항 중심으로 정책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위기 청소년의 범주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람. 등교거부로 시작되는 학교밖청소년이면서 학교밖청소년 조사로도 실태를 파악할 수 없고 이상의 위기청소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숫자는 비행청소년보다 많

고 다문화청소년에 버금갈 수 있음. 가시화 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임. 학교에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무기력한, 존재감 없는 학생-폭력 가해 학생의 존재감에 비해 왕따 등을 당해 억울함에 집으로 숨어 드는 경우는 많음으로 있다가 청소년기에 등교거부 등을 시작해 짧게는 2-3년, 5년, 10년을 집에 머무는 존재에 대한 가시화가 필요함. 이들은 가출, 비행 청소년과는 성향이 다른 청소년들로 중복성이 없는 다른 집단임. 이들에 대해서는 조례조차 없음. 광주, 부산, 제주 등에서 제정을 시작, 실태조사와 더불어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위기청소년 범주 설정에 있어 연구의 한계로 제시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

- 농어촌 지역 청소년에 대한 위기 대응이 더욱 취약함. 시설 중심 대응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기관과 시설이 아니라 움직이며 일하는 체계가 더욱 필요하다고 봄.
- 아주 좁은 사무실에 근무자 이름만 적혀 있고 근무지는 거리 그 자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 상담실은 카페나 벤치가 됨. 따라서 시설 중심, 공간 중심이 아니라 지원 인력 중심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봄. 현재 청소년상담이나 서비스는 성인 위주의 사무공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는 인터넷/모바일 폰이 상용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적합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봄. 청소년 중심의 작은 공간,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공간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며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매우 의미 있다고 봄. 청소년보호시설로 유스호스텔을 활용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쉼터 등도 어른이 교대로 상주하여 지원을 하되 청소년 자치 숙박형(청소년 대상 저렴한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화)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청소년이 모이는 곳에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이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가는 지역적 차원에서 유연성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심리지원센터에 대한 질문

경기도에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건강복지센터와 독립되어 설치된 것을 보았고 이것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발전적인 정신건강복지 체계임을 인지하였음.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어느 부처 산하에 소속되고자 하는가가 의문임.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이에서 무엇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가 궁금함.

나.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토론)

전부여고등학교교장 최규학

먼저 본 연구를 수행하여 주신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송원영교수님과 보조하여 주신 최재광, 한지현, 이유경 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를 기획하고 지원하여 주신 충남도의회 양금봉의원님과 정준모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매우 섬세한(subtle)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토론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땀감이 흥시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는 연구팀, 추진팀, 협력팀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가 아닌가 합니다.

매우 섬세한(subtle) 연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테마 하나하나에 대한 접근이 폭이 넓 으면서도 깊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토론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반영하려는 노력도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

주제별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가출 비율은 3.5%인데 한부모 가정 5.6%, 조손가정 6.9%로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통계 청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여기서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을 청소년 가출의 원인으로 본 것은 다소 무리한 관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족 형태는 엘빈 토플러가 예측한 대로 학교가 10마일로 변할 때 60마일로 변할 것이 예상됩니다.

배우자 사망으로 한 부모 가정이 된 경우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된 한부모 가정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과는 구분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칙센트미 하이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는 것이 창의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공자도 3세에 한부모 가정이 되었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는 3세 때, 맹자는 4세 때, 한석봉도 3 세 때 한부모 가정이 되었습니다.

위기 청소년의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것도 좋으나 앞으로는 가정 안, 학교 안, 교실 안에만 머무르는 청소년도 위기 청소년의 대열에 포함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헌과 데이터 조사연구> 부분입니다. 위기 청소년의 개념에서 청소년의 위기를 1수준에서 6수준까지 구분한 것은 좋은 이론 무장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위기 요인으로 개인 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또래 요인, 사회요인으로 심층 분석하여 제시한 것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요인에 가장 많은 내용을 제시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켐은 <자살론>에서 자살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인 요인에서 개인 책임으로만 돌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학교폭력, 게임중독, 성범죄 등 사회와 연계된 문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본 뒷부분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것은 의미 있는 데이터라 생각합니다.

2020년 충남 청소년의 가출의 주된 원인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이 0%이고 가족갈등이 89.5%인 점과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10.5%인 점은 부모교육 및 학생 가치관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자료라 생각합니다.

2020년 충남 통계에서 청소년 쉼터는 42.6%가 알고 있으나 3%만 이용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48.5%가 알고 있으나 3%만 이용했으며, 청소년 전화 1388도 57%가 알고 있으나 1.8%만이 이용했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있으나 위기 청소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부분에서 청소년 관련 법률 및 조례의 현황을 도별 비교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해 매우 적절한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위기 청소년 관련 조례와 위기 청소년 안정망도 분석하여 연구범위를 확장했으나 교육부의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소 빈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스쿨아웃을 예방하고 스쿨리턴을 확대할 수 있으려면 Wee 기관에 대한 활약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충남 청소년 지원시설 현황분석은 통계분석에 의존하였는데 대체로 시 단위보다 군 단위가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과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적 연구를 통한 실태>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 문헌연구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에서 나아가 실제 면담을 통한 스펙트럼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아주 바람직하고 값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청소년 9명과 실무자 9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 수가 적은 점은 있지만 연구의 내용과 질적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청소년 면담 내용을 기록하여 설득력을 높인 것도 돋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자퇴 청소년의 사례를 보면 저 자신이 교육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교육자의 자질을 보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서러운 것은 담임선생님이 저 자퇴서 작성하러 올 때 저희 부모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꼬면서 딱 이런 표정인 거예요. 너는 어차피 갈 애니까 난 더이상 붙잡지 않겠다. 이라고 선생님이 제가 자퇴할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해줬는데 선생님이 심지어 위클래스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아끼셨는데 그 선생님도 저를 좀 서운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저를 왕따시켰던 그 친구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서러워서 그냥 나 진짜 여기 있으면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퇴서를 썼는데 자퇴서에 중간 중간에 칸이 나뉘져 있어요. 자퇴 사유를 학교 폭력이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

생님이 부적응으로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겠어요. 그냥 부적응으로 적고 그냥 자퇴를 한 거죠”

실무자 인터뷰 분석에서도 위기 청소년의 가정문제, 학교문제, 개인 문제가 매우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AI 시대에 빅데이터보다 스몰데이터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도움 유형과 내용, 필요한 지원 내용, 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및 분석> 부분입니다. 위기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실무자 대상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실무자가 인식하는 청소년 위기 실태, 청소년 안전망, 개선점, 확충이 필요한 청소년 시설 등의 항목을 조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시군별로 불균형 상황을 파악하고 시군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연구 자세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책 제안 및 향후 연구 계획> 부분입니다. 충남지역의 청소년 특징에 근거한 제언으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 충남지역 내 불균형 해소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되지 않게 하는 예방지원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단순한 통계적 기준보다는 낙후 지역에는 단 1명의 위기 청소년이 있더라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청소년의 특징과 추이에 근거한 제언에서는 심리지원센터 설치, 후기청소년 지원, 위기/비위기 구분 없는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적극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평생교육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제언에서는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 조례와 심리지원센터 설치 조례에 대한 제언을 하였는데, 매우 바람직한 제언이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담당 인력의 정규직 확충과 담당업무의 난이도에 따른 특별지원에 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르투갈의 시인 페르난도 페소아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작은 일에도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읊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가족 여러분은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서 모두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으로 인하여 충남의 위기 청소년이 단 한 명이라도 행복해지고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면 더 없는 보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좋은 연구를 수행하여 주신 송원영 교수님과 연구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소년 보호와 육성의 책임의주체 -가정을 넘어 국가와 지자체 책임 중심으로-

김천룡(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장)

한국의 총 생산량 GDP는 약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73개국 중 9위에 위치한다. 국민생산수준 34,870 달러로 세계 26위다, 쉽고 간략하게 말하면 잘사는 나라다. 물론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가 8개 나라가 있고, 국민의 소득수준보다 국가가 잘산다는 점은 명백히 반박하기 어렵다.

청소년 기본법에 제2조 기본이념에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나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사람을 기른다는 전제를 밑바탕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책임과 주체는 1차로 가정에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7조와 8조에 규정하고 있다.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잘사는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라 표현은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잘 사는 나라에 잘 사는 국민이라 하기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이 양극화를 국민에게 현실적 감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국가가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미래세대를 키우는데 뒷집을 지고, 못사는 가정(국민)을 앞세우는 건 국가의 존재를 부정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가족해체위기,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아이, 방임된 아이들,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그대로 품고 성인이 되어사회에 진출한다면 우리 사회는 크나큰 비용을 지불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에 대한 걱정이 크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미래 인재가 없어서 고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투자다.

위기가정 단체로 관광시키는 것보다 개인적 여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을 읽고

전인식(한국교육개발원)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시는 충청남도 의원님,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해주신 송원영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에게 감사합니다.

1. 한때 유행한 신자유주의의 가치관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개인의 영역에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여는 불필

요하다. 이러한 시각은 교육에 있어서도 “우수한 인재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므로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 육성에 힘써야 하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의 문제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형태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영재교육이나 우수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은 아낌없이 사용하지만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비용에는 한 없이 인색했다(아직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교육에 있어서 그러한 능력주의는 기존의 학연, 지연의 문제 해결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면도 있었다. 그러나 능력주의의 병폐는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방치하여 위기 청소년의 위기 심화와 공동체 윤리의 위기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주제인 ‘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2. 연구에서 위기의 시작은 ① 개인, ② 가정, ③ 학교, ④ 또래, ⑤ 사회요인으로 구분하였다.

- ① 개인 : 심리정서적 부정정서
- ② 가정 : 학대, 일관적이지 못한 훈육, 갈등, 가정해체
- ③ 학교 : 교사와의 갈등, 친구관계 갈등, 학교 및 학업에 대한 거부감
- ④ 또래 : 비행청소년의 영향
- ⑤ 사회요인 : 지역사회요인, 과도한 인터넷 사용, 낙인

이러한 구분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위기 청소년을 ‘① 가정에서의 위기, ② 학교에서의 위기, ③ 가정 밖 청소년 ④ 학교 밖 청소년, ⑤ 비행청소년’으로 구분하고, ①②를 위기청소년, ③④⑤를 고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고, ①②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③④는 고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여가부)이 담당하고, ⑤는 법무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어떨까? 고등학교 졸업 이후 23세까지의 청소년 자립지원, 취업지원 등이 필요한 청소년, 한 부모 자녀, 이혼가정 자녀, 다문화 및 중도입국 청소년은 위기 가능성이 높아서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위기 청소년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중도입국 청소년은 한국어는 잘 못할 수 있지만 각자가 별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청소년인 것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은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아울러 자신의 외모와 언어능력 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만일 그/그녀가 위기/고위기 청소년이 된다면 위기/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듯 지원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3.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 restart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함. 1년이나 2년 쉬었다가 다시 학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휴학, 재입학, 전편입학 제도의 운영을 교육청에서 검토하는 것을 권함.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숙식제공을 넘어서 개인의 발전기회 제공으로 전환 요망 : 현재 단기 및 중장기쉼터의 경우 재학중인 청소년 지원의 한계 ⇒ 학습지원을 위한 연계, 공간, 기회 제공 필요, 구성 인력을 복지 중심에서 상담 및 학습 지원 인력으로 구성 필요, 가정 회복을 통한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필요(부모상담, 관계회복 등)

4. 개선점 관련 : 행정은 예산 지원시 필수적임. 장소는 시설의 문제는 지자체에서 지원이 요망됨. 정신과 치료 필요시 치료비 지원 필요함.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Cys-Net과 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복귀를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 연계 지원, 학업 결손이 많거나 기초학력 부족 학생의 지원을 위한 학습 지원을 위해 관내 대학생 봉사참여 요망됨. 쉼터의 경우 외부 연계를 의존이라 판단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보호자와의 관계회복, 상담 등의 강화 요망됨. 치료형 쉼터 : 치료는 의사가 하는 업무임. 병원에서 진단, 투약, 입원 등은 병원 연계로 해결 필요함.

치유 중심의 심리지원센터 : 심리검사와 상담 및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있지만, 쉼터, 그룹홈, 자립관, 아보전 등 필요 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것을 권장함.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의 필요성 :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판정하기에는 조심스러움.

충청남도 위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실태에 대해서는 최소 3년간의 성과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 실시한 뒤에 판정하는 것을 권장함.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면담조사 참여자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소수로 보임. 기존 시설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할 것인가, 인력을 추가 배치할 것인가,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것인가의 판단은 시기 상조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는 천안의 자립관의 운영 결과를 본 뒤에 결정 요망

충남지역 내 불균형 해소 : 인구수와 면적 대비 지자체별로 적정 수의 기관이 필요함. 다만 그 적정 수는 수요와 맞춰서 파악되어야 함.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 대전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 현재도 많은 단기 쉼터와 중장기 쉼터 사이에 적정 수의 수요 청소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소수의 위기 청소년을 위한 기관에는 소수의 종사자가 근무하게 되고, 그 결과 적절한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중독관련 문제 해소 : 스마트폰과 게임은 시대적 추세이므로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함께 이해하고, 올바른 사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DSM-5, ICD-11에서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중독이란 표현은 부적절함.

5. 위기청소년의 특징과 추이에 근거한 제언

-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부재 : 자해, 자살시도,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각 지역마다 시설이 있는 것이 적절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이용 청소년의 실태와 성과분석 등이 우선 검토되어 충청남도에 수요가 있음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치료 재활센터, 국공립심리치료센터, 심리지원센터 등의 운영 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연구를 후속으로 진행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가정문제에 대한 개입 제공 : 출산 전 가정의 양육환경 및 자녀 양육의 기본 소양 안내는 권장한다. 그러나 외부 기관이 드러난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문제 소지가 있음. 농어촌에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이 있는 전문가가 참여를 거부하는 실정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요망.
- 학교문제에 대한 개입 제공 : 통학버스 제공, 가정 밖 청소년의 전학 조건 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정적인 인적 자원과 장소의 제공 : 시설은 제공, 인력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필요. 원칙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수요가 적은 곳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청소년 기관에 대한 인지도 상승 :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위클래스)에서 안내
- 도시지역, 타시도 및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 : 초, 중, 고를 거치면서 접촉하는 면 단위에서 읍단위로, 읍단위에서 군단위 내지는 도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가는 상황임. 농촌지역의 학생이라고 봉사대상, 결연대상, 후원대상으로 보는 것은 낙인이 아닐까 우려됨.

시행착오가 가져오는 재정적, 인적, 물적, 정신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연구와 사업을 진행해오던 입장에서 조심스러운 의견을 개진한 것이므로,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경우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연구진의 성실한 연구에 대해 여러분의 토론을 거쳐 앞서 나가는 충청남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위기가정 가족캠프 프로그램 운영

가. 2021 학생정신건강증진강화를 위한 1차 가족과 함께! 마음 연결 캠프 운영결과

1) 행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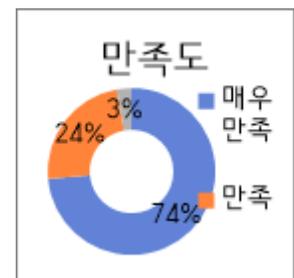
- 일 시: 2021년 6월 24일(목)~6월 25일(금)
- 장 소: 서천군청소년수련관
- 대 상: 대상자: 45명(14 가정)

2) 만족도결과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에 대해 만족합니까?	28 (88%)	4 (13%)			
2.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에서 부모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23 (72%)	8 (25%)	1 (3%)		
3.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에서 부모님을 많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23 (72%)	6 (19%)	3 (9%)		
4. 1박 2일 캠프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 (75%)	5 (16%)	3 (9%)		
5. 캠프 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 (84%)	5 (16%)			
2021학년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중복 답)					
숲 밧줄놀이	역사체험(4가지 코너)		오리엔티어링		
10	21		18		
2021학년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체육활동, 캠프파이어, 극기체험		- 텐트치고 하는 활동, 달리기, 피구, 배구,			
- 직업체험, 문화체험		- 같이 요리해서 가족과 밥먹기, 협동게임			
		- 인성교육			

2021학년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 소 감 문

- 다 좋았지만 옛날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추억에 남을 것 같다.
- 도와주신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1박 2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너무 재미있었고 만족스러웠다.
- 자주 했으면 좋겠고 2박 3일로 늘어나면 좋겠다.
- 여러모로 흥미로웠다. 여러 활동들이 다 재미있었다.
-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밧줄놀이하며 점프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즐겁게 참여했다.
- 엄청 재미있었다. 자주 왔으면 좋겠다.
- 신나고 1박 2일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 모두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 가족과 함께 뜻깊게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화합인거 같아서 좋았다.



3) 활동사진



나. 2021 학생정신건강증진강화를 위한 2차 가족과 함께! 마음 연결 캠프 운영결과

1) 행사 개요

가) 주제: '가족과 함께! 마음 연결' 캠프

나) 기간: 2021년 10월 21일(목)~10월 22일(금)

다) 장소: 반디랜드(태권도원)와 무주리조트(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재)

라) 대상자: 학업중단위기학생 가정, 일반학생 가정(5:5, 12가정)

마) 이동방법: 학생은 가족과 함께 개별이동(개인차량)

2) 만족도결과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에 대해 만족합니까?	28 (88%)	3 (9%)	1 (3%)		
2.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에서 부모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20 (63%)	9 (28%)	3 (9%)		
3.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에서 부모님을 많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22 (69%)	7 (22%)	3 (9%)		
4. 1박 2일 캠프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 (78%)	6 (19%)	1 (3%)		
5. 캠프 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 (84%)	3 (9%)	2 (6%)		
2021학년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에서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태권도원 체험	세족식 프로그램		곤돌라와 등산		
5	18		11		
2021학년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에서 추가되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의 레크레이션 - 캠프에서 저녁식사 - 산에서 힐링프로그램 - 활동적인 야외 게임활동 - 저녁에 바비큐 - 특별한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들기 - 참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 전신성장마사지와 비누 만들기 - 요리하기 - 서바이벌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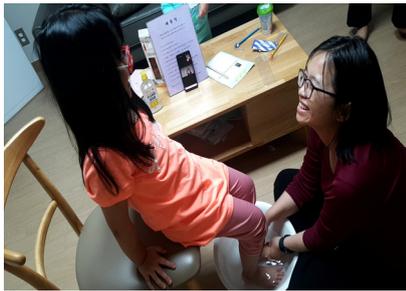
2021학년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 소 감 문

- 처음으로 아이와 캠프에 참여했고, 집이 아닌 곳에서 1박을 하는 것 좋았다.
- 다음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
-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 기대 이상으로 프로그램이 좋았고 덕분에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 숙소도 깨끗하고 밥도 맛있었고 체험도 좋았다.
- 프로그램 안내 선생님들 친절하셨다. 강추 프로그램이다.
-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며 행사 진행이 아주 여유 있어서 좋았다.
- 태권도 체험을 처음 해보았으며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 같다.
- 한마디로 "행복했어요." 1박 2일 동안 아이에게 감사함과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선생님들의 책임으로 낯설지 않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 시간 내주시고 프로그램도 내주셔서 감사해요.
- 할머니와 처음 게임을 해서 너무 재미있었다.
-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었고 대접이 훌륭해서 아주 좋은 캠프였다.
- 아이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어 더욱더 즐거웠다.
- 1박 2일 동안 즐겁고 힐링한 기분이다.
- 가족들과 모처럼 재미지게 보냈고 좋은 추억 만들어서 기분도 좋고 즐겁다.
- 매일 바빠서 아이들과 아이 엄마 얘기에 귀 기울여주지 못하고 늘 할 말만 했는데 이번 계기로 서로 이야기하지 못한 가슴속 이야기를 하게 되어 기뻐다.
- 크게 무얼 한다가보다 가족들이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프로그램 수행하실 때 공지를 조금 더 미리미리 부탁드립니다.



3) 활동사진

세족식과 편지쓰기



곤돌라체험과 등산 미션



-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 연구모임이 땡감이 흥시가 되어간다.
- 우수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 위기청소년 지원관련 기관 설치의 필요성에 기존에 있는 기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 위기학생 지원기관이 기존에도 있지만 학생들이 접근 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곳이 있을수록 좋다.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위기 가족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단체 관광형식보다는 가족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위기학생 지원시설 즉 쉼터 등이 천안 아산지역에 집중되고, 충남 서남부권에 있는 시설 이용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 지역 단기쉼터 설치 필요하다.
- 위기 학생들이 장기시설을 찾기 전까지의 생활할 단기 쉼터 설치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
- 위기학생들에 대한 자립지원과 진로방향 설정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충청남도 가 전국에 비해 조례 및 위기학생 지원 내용이 잘 만들어져 있다.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학교내, 가정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학생 중동문제가 더욱 심각해 졌다. 이런 학생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 위기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시기적절하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위험하다고 한다. 중도입국의 경우 한국말은 잘 모르나 각자의 다른 언어는 잘 할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논의와 정책제안

- 충남지역의 특징 및 청소년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 관련 조례,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 충남지역 내 불균형 해소, 위기 수준에 따른 개입, 중독관련 문제 해소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함.
 - **청소년 관련 조례** : 충청남도의 경우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제정이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음. 이러한 점은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행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 충청남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가출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초단기 가출과 장기 가출의 수가 높았으며, 이는 막상 가출을 해도 갈 곳이 없어 금세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가정 밖으로 나가 도시로 떠나 버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가출의 양극화가 충남지역의 특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나 일시쉼터 형태의 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 : 충청남도의 경우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기반이 미비한 상태임.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과 관련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 **충남지역 내 불균형 해소** : 충청남도의 경우 청소년지원시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인구와 면적이 고려되지 못하여 기관과 물리적인 거리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따라서 인구수와 면적에 따른 청소년 지원 시설이 확보되어야 함.
 - **위기 수준에 따른 개입** :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수준에 따라 필요한 개입이 다르게 보고되었다. 고위험의 경우 경제적 지원, 위험군은 경제, 상담, 법률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잠재군은 상담지원, 일반군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기의 종류 및 수준 그리고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중독관련 문제 해소** : 실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청소년들이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문제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미디어 중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따라서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캠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대해야 함.
- 위기청소년 특징 및 추이를 바탕으로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부재,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위기/비위기를 구분하지 않는 소규모 중립적 시설 개발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함.
-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를 다루는 기관의 부재** : 대부분의 기관의 실무자들은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증가함을 지적하였고 이로 인한 자살관련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충청남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따라서 심리지원센터와 같은 심각한 심리 및 정서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 후기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 진학한다고 생각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30~40%의 후기청소년들이 대학진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위기청소년은 일찍부터 취업이나 자립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에 놓임. 따라서 후기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경제적 지원, 심리 및 상담지원과 같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보임.
 - **위기/비위기를 구분하지 않는 소규모 중립적 시설 개발** : 위기여부와 무관하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중립적 시설 개발 및 보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도시지향적 콘텐츠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경험을 통해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 전 예방적 개입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음.
- 행정적 지원을 위해 가정, 학교문제 및 안정적인 인적 자원과 장소 제공, 청소년 기관에 대한 인지도 상승 노력, 도시지역, 타시도 및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함.
- **가정문제에 대한 개입 제공** : 가정은 청소년의 위기가 시작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기관이 매우 부족함.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계 비중 및 교류 정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초기개입에 한계가 있으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 및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가정 내 문제, 이혼에 대한 자녀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및 실무자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나 사회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기 이전에 예방 등을 통해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문제에 대한 개입 제공** : 충남 단위면적당 청소년 수의 감소에 따라 학교 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타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함. 이러한 통학의 어려움은 학업중단 고려 또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통학버스 운영, 거주지 이전 절차 완화 등을 통해 학업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안정적인 인적 자원과 장소의 제공** : 위기청소년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의 존재’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의 짧은 근무 기간, 빈번한 기관 이전 등의 이유로 상담자, 보호자, 멘토 등 건강한 어른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실무자의 신분, 급여 보장, 안정적인 장소 확보 등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청소년 기관에 대한 인지도 상승 노력** : 청소년 관련 기관(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에 대한 인지도가 약 50%로 조사된 가운데, 이는 기관의 존재 여부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함. 더불어 청소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후위기를 경험하였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음. 따라서 청소년 기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체험활동 등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 **도시지역, 타시도 및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 : 모범적인 대상과의 만남은 위기청소년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자원 부족으로 대학생 멘토링, 지속적인 결연 등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봉사, 후원 프로그램, 온라인 모임이나 행사 등이 제공 및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제도적 지원을 위해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조례 관련 제언, 심리지원센터 설치 조례 신설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제시함.

- **가정 밖 청소년 조례 관련 제언** :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행중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육, 상담, 생활, 자립에서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타시도와 비교 및 실무자 인터뷰에서 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및 주거지원, 거리상담, 야간생활지도 지원 등의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조례 관련 제언** : 현재 충청남도에서 시행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담, 교육, 자립지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타지역 대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타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진로, 심성 향상, 사후 지원, 자립지원, 건강지원 등의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심리지원센터 설치 조례 신설 제안 : 심리지원센터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 개입을 위한 접근성 높은 기관 마련의 필요성 대두로 각 지자체에서 지원, 개설된 기관 임. 타지역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이유로 이미 존재하는 시설 이용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폭넓게 접근하기 위해 ‘심리지원센터’와 같은 범용적 기관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충청남도예 위기청소년 개입에 대한 접근성 향상, 청소년 중심 지지체계에 대한 동시 접근이 가능한 심리지원센터를 도입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연구모임 회원명단

순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대표	양금봉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도의원
2	간사	정준모	서천교육지원청	상담실장
3	회원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
4	회원	전익현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5	회원	조동준	서천군의회	군의원
6	회원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교수
7	회원	신영권	서천초등학교	교장
8	회원	이은주	입장초등학교	교장
9	회원	정태모	은산중학교	교장
10	회원	권영선	진산중학교	교장
11	회원	최규학	(전)부여고등학교	(전)교장
12	회원	강재천	장항공업고등학교	교사
13	회원	홍경숙	서천군청	자치행정과
14	회원	한미희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15	회원	김소아	한국교육개발원(교육복지연구실)	책임연구원
16	회원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교육복지연구실)	선임연구원
17	회원	고규희	서천교육지원청	상담교사
18	회원	신이네	당진교육지원청	상담교사
19	회원	윤충원	평택교육지원청	전문상담사
20	회원	정민경	충남학생상담자원봉사	자원봉사자

2

연구모임 활동

①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 1차 회의



②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착수보고 토론회 및 제 2차 회의



③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중간보고 토론회 및 제 3차 회의





④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최종보고 토론회 및 제 4차 회의



⑤ 교사학습공동체 학생 증독연수 강의

